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청렴도 향상방안

Improvement of a Potential Integrity on Korean Police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Ho-Dae Cho(jhd30@sch.ac.kr)

요약

우리나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2002년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방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청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잠재청렴도 향상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청렴 | 부패방지 | 경찰공무원 | 잠재적청렴도 | 부패 |

Abstract

Today,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and the citizen demand actively and efficiently, the Korean police is attempting a great change inside and outside such a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centralized police system.

Police's corruption is serious in various statistical data that present from lower part that is show. compares to continuous upright improvement effort and evaluation of the inside of the police system, the citizens recognition against it is evaluated lowly.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on police potential integrity between member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citizen and the external agency points the insufficiency of police improvement, deficiency of effective system and policy, organization culture as causes.

■ keyword : | Integrity | Corruption Prevention | Police | Corruption | Potential Integrity |

접수번호 : #090609-001
접수일자 : 2009년 06월 09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6월 17일
교신저자 : 조호대, e-mail : jhd30@sch.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패문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2002년 1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청렴위원회(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출범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및 유발요인을 파악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대책수립과 개선노력을 적극 유도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다양한 강도 높은 자체 사정활동과 부단한 윤리교육의 실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은 아직도 경찰의 청렴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금품·향응 수수와 직결되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이라는 체감청렴도보다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태도,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과 같은 잠재청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대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경찰청이 낮은 지수를 받은 것도 체감청렴도에 비해 잠재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합적 청렴도 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다[1].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경찰발전의 추동력으로서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잠재적 청렴도 향상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청렴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부패의 개념

부패의 일반적인 정의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면 공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인 공직중심의 정의,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인 공익중심 정의,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부패방지법 제2조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어진다[2].

경찰부패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력을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경찰권의 부적절한 행사를 하면서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3].

2. 부패의 발생원인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국가나 사회, 집단에서나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함수가 서로 다른 이상 항상 존재하고 있다. 부패는 개인의 욕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를 유발한다고 보는 개인적 발생원인과 사회집단은 각각의 목적 함수를 가지며 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활동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사회적 발생원인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경찰의 부패원인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경찰행태의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것으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부정직한 사람이 경찰조직에 와서도 부패경찰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 경찰공무원이 경찰활동 중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패된다는 것이다[4].

3. 청렴도 개념 및 종류

청렴도란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와 부패를 유발시키는 환경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민원인이 경험 및 인식을 측정한 것이다[5].

일반적으로 기관의 청렴도는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 두 가지로 나누어 측정되어 진다. 체감청렴도는 금품·향응 제공인식인 부패인식과 금품·향응 제공빈도와 금품·향응 제공규모인 부패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잠재청렴도는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와 추가면담 필요성인 업무환경, 기준·절차의 현실성과 정보공개 정도인 행정제도, 업무처리 공정성과 금품·향응 수수기대인 개인태도, 부패방지 노력도와 이의제기 용이성을 측정하는 부패통제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의 경우 2008년도에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모형을 개선하여 부패측면 뿐만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측면까지 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부패개념을 금품향응에서 편의제공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높아진 부패인식수준을 청렴도 측정을 통해 반영하도록 한 것에서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Ⅲ. 청렴인식도 현황 및 분석

1. 청렴도

[표 1]에서 보면 2007년도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청의 경우 8.48로 국세청(9.04), 조달청(9.23), 식품의약품안전청(8.78)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지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청 단위의 조사기관에서 대검찰청(8.28) 제외하고는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표 1.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중앙행정기관('07)	
부 처	청
기획예산처 (8.11, -0.60)	국세청 (9.04, 0.27)
법제처 (9.48, 신규)	관세청 (9.23, 0.20)
국가보훈처 (9.08, 신규)	조달청 (9.02, 0.84)
공정거래위원회 (8.71, -0.11)	대검찰청 (8.28, 0.48)
국가청소년위원회 (9.05, 0.49)	병무청 (9.04, 0.16)
재정경제부 (9.23, 0.39)	방위사업청 (8.86, 0.17)
과학기술부 (9.16, 신규)	경찰청 (8.48, 0.13)
통일부 (8.90, -0.11)	문화재청 (9.08, 0.16)
법무부 (9.05, -0.08)	농촌진흥청 (9.15, -0.03)
국방부 (9.21, 0.20)	중소기업청 (9.06, -0.12)
행정자치부 (9.14, 0.04)	특허청 (8.77, 0.06)
문화관광부 (9.16, 0.30)	식품의약품안전청 (8.78, 0.41)
농림부 (9.28, 0.13)	
산업자원부 (9.06, 0.10)	
정보통신부 (9.09, 0.01)	
보건복지부 (9.09, -0.13)	
환경부 (8.92, -0.05)	
노동부 (9.01, 0.03)	
건설교통부 (8.81, 0.41)	
해양수산부 (9.13, 0.18)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표 2]를 보면 기관유형별로 종합적인 청렴도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평균(9.18)이 전반적으로 우수한데 비해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 평균은 8.37점으로 가장 저조하다. 경찰청의 경우 공직유관기관의 청렴도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관유형별 청렴도

구 분	대국민·대기관 청렴도	
	'06	'07
전체	8.77	8.89
중앙행정기관	8.88	8.99
자치단체	8.74	8.81
지방교육청	8.54	8.37
공직유관단체	8.95	9.18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 내국인(일반국민, 공무원) 조사결과

[표 3]을 보면 공직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일반국민은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2.6%),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31.3%)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 2006년 7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금품수수'(28.0%→16.1%), '이권개입'(8.8%→6.6%), '사익추구'(13.2%→11.7%)는 줄어든 반면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22.1%→32.6%), '공금횡령/예산유용'(9.5%→15.3%) 등은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과 공무원간의 부패유형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

표 3. 일반국민과 공직원간의 부패유형 인식차이

2007년	일반국민	공무원
금품수수	16.1%	10.4%
직위를 이용한 알선 및 청탁	32.6%	27.6%
공금횡령/예산유용	15.3%	2.4%
업무관련 비공개 정보를 통해 사익추구	11.7%	7.3%
접대, 향응, 편의제공	13.5%	31.3%
각종 이권개입	6.6%	2.7%
직무 관련자 경조사 통보/부조금수수	1.4%	6.7%
기타	1.6%	0.7%
잘모름	1.2%	11.9%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1 부패수준 및 실태에 관한 인식

2.1.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2002년 조사이후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은 점차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선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구분	부 패	부패하지 않음	보 통	잘모름
'07.11	45.4%	-	-	-
'06.11	36.9%	21.1%	35.0%	6.9%
'05.10	45.5%	9.0%	39.5%	6.0%
'04.08	50.5%	9.8%	32.8%	6.9%
'03.12	54.5%	14.2%	31.3%	-
'03.06	63.3%	11%	25.7%	-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표 5]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이 2003년(64.6%) 대비 8.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

표 5. 일반국민 중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한 비율

날짜	03.12월	06.7월	06.11월	07.7월	07.11월	전년대비
비율	64.6%	57.1%	55.9%	56.5%	57.2%	+1.3%p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표 6]을 보면 일반국민 중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한 이유에서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한 것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변에서 부패관련사건,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가 20.4%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타 기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

표 6. 일반국민 중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한 이유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일반국민(790명)(07.7)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보도에 기초하여	43.5%	
주변에서 부패관련사건,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20.4%	55.3%
동료나 가까운 사람의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15.5%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해서	19.4%	
기타	1.2%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1.2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

[표 7]을 보면 일반국민은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들의 부패수준에 대해 '감소'가 22.1%(매우 감소: 3.0% + 다소 감소: 19.1%), '증가'가 22.0%(매우 증가: 7.1% + 다소 증가: 14.9%)라는 응답을 보였다. 공무원은 '감소'가 67.0%(매우 감소: 23.4% + 다소 감소: 43.6%), '증가'가 1.0%(매우 증가: 0.3% + 다소 증가: 0.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전년 대비 부패지수가 0.13 상승한 것에 미루어 체감청렴도에 있어서는 다소 개선되었다고 여겨진다.

표 7.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

구분	증가	비슷	감소	잘모름
일반인('06)	22.0%	47.7%	22.1%	8.2%
공무원('06)	1.0%	27.1%	67.0%	4.9%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1.3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일반국민은 우리사회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가 2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20.4%), '개인의 윤리의식부족'(17.9%), '구조화된 부패문화'(17.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무원은 '개인의 윤리의식부족'이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25.6%), '구조화된 부패문화'(24.6%),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의 결과 역시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일반국민과 공무원과의 의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견해

구분(2006년)	일반국민	공무원
부정부패 유발하는 정치구조	28.1%	25.6%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0.4%	12.1%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7.9%	26.4%
구조화된 부패문화	17.6%	24.6%
부패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12.5%	7.6%
기 타	2.3%	3.7%
잘모름	1.2%	-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1.4 분야별 부패수준

[표 9]를 보면 행정분야별로는 일반국민(2007년 7월 조사결과, 70.8%), 기업인(58.8%), 공무원(34.6%) 모두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방'분야가 가장 낮았다. 행정분야별 응답결과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행정분야 중 가장 인식이 나쁜 '건축, 건설, 주택, 토지'분야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점수는 2.48점으로 공무원(5.26점)보다 2.78점, 기업인(3.33점)보다는 0.85점이나 낮지만, 가장 인식이 좋은 '소방분야'의 경우 일반국민의 인식점수는 6.64점으로 공무원(7.35점)보다 0.71점 낮지만, 기업인(6.01점)인 보다는 0.54점 높았다.

표 9.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인식지수

행정분야	일반국민 (07.7)	공무원 (07.11)	기업인 (07.11)
	10점 평균	10점 평균	10점 평균
건축·건설·주택·토지	2.48	5.26	3.33
세무	3.51	5.34	4.61
경찰	3.86	5.52	4.42
검찰·교정·출입국관리등 법무	3.49	5.41	4.78
교육	4.2	6.11	4.56
병무·국방	3.94	6.36	5.19
보건·위생·의료	4.52	6.79	5.15
조달	4.23	7.1	5.18
환경	4.82	6.99	5.52
소방	6.64	7.35	6.01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2.1.5 우리사회 부패수준

[표 10]의 경우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 '부패하다' 응답비율은 청소년(75.8%)→일반국민(55.5%)→기업인(27.8%)→공무원(16.4%)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일반국민(7.9%p), 기업인(9.2%p), 공무원(2.7%p)은 감소한 반면, 청소년(2.7%p)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일반국민이나 기업인들에 비해 부패수준 및 청렴도에 있어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추이

		06.11	07.11	전년대비
부패하다는 응답비율	일반국민	63.4%	55.5%	-7.9%p
	공무원	19.1%	16.4%	-2.7%p
	기업인	37.0%	27.8%	-9.2%p
	청소년	73.1%	75.8%	+2.7%p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3. 외국인 조사결과

3.1 부패수준 및 실태에 관한 인식

3.1.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표 11]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언론 등의 보도에 의해 정보를 얻은 것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나 가까운 사람의 경험을 보거나 들은 것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외국인 중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한 이유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	외국인(200명)('07.7)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부패관련보도에 기초하여	57.1%	
주변에서 부패관련사건, 실태를 보거나 들어서	12.1%	40.7%
동료나 가까운 사람의 경험한 것을 보거나 들어서	22.0%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에 근거한 인식에 기초해서	6.6%	
기타	2.2%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3.1.2 민간분야 부패수준

민간분야의 전반적 부패수준은 '부패하다'가 41.9%(매우 부패: 5.9% + 부패한 편: 36.0%), '부패하지 않다'는 긍정적 인식은 10.8%(거의 부패하지 않음: 1.4% + 별로 부패하지 않음: 9.4%)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보통: 36.0%, 잘모름: 11.3%)

표 12. 한국 민간분야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구분'06		부패수준 인식	
부패	매우부패	5.9%	41.9%
	부패한편	36.0%	
모통		36.0%	
부패하지 않음	별로 부패하지 않은편	9.4%	10.8%
	거의 부패하지 않음	1.4%	
잘모름		11.3%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표 12를 보게 되면 민간분야 부패수준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외국인은 4.23점으로 전년(4.0점)에 비해 0.23점, 기업인 5.34점으로 전년(5.08점)대비 0.26점 상승하여 개선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민간분야에 대한 부패인식 추이

		'06.11	'07.11	전년대비
부패 인식지수 (10점 평균)	외국인	4.00	4.23	+0.23점
	기업인	5.08	5.34	+0.26점
'부패하다' 응답비율	외국인	41.9	35.0	△6.9%p
	기업인	24.3	22.7	△1.6%p
'비부패' 응답비율	외국인	10.8	13.5	+2.7%p
	기업인	23.8	33.3	+9.5%p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3.1.4 부패 발생원인

한국사회의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가 2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구조화된 부패문화'(21.7%),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2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발생 원인을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로 보는 의견은 아시아권(27.8%), 여성(28.1%), 50대이상(30.0%),에서 높고, '구조화된 부패문화'는 대양주(58.3%), 40대(30.6%), 서울(29.3%)에서 높다. 한편, 부패발생 원인을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보는 의견은 미주권(33.3%)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14. 한국의 부패 발생원인

구분	2006	2005
부정부패 유발하는 정치구조	22.7%	20.5%
구조화된 부패문화	21.7%	47.5%
부패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21.2%	10.5%
개인의 윤리 의식 부족	16.7%	13.5%
부정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13.8%	6.0%
기타	1.9%	2.0%
잘모름	2.0%	-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3.2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와 실제 수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의 인식차이에 대해서는 '더 청렴하다'(14.7%)는 응답률이 '더 부패하다'(9.8%)는 응답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5. TI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수준

응답내용	더 청렴	비슷	더 부패	잘모름
비 율	14.7	49.5	9.8	26.0

*. 자료 : http://www.acrc.go.kr/acrc/index.do

Ⅳ. 잠재청렴도 향상방안

1.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다양하고 효과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청렴한 경찰관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업무수행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을 각종 교육시 중점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은 신임교육 과정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재직훈련이나 직장훈련시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경찰청은 2004년 후반기부터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고 민원 모니터링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시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찰서의 경우 자체 모니터링의 경우, 온정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결과의 인위적 조작이나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니터링의 역기능마저 가져오고 있다. 생활안전이나 교통, 수사와 같이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는 필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제기되면 즉각적인 환류를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3.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경찰관서에 출석하는 민원인의 막연한 두려움, 사전에 청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것 같은 피해의식을 없애고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민원인 조사 등 각종 처리업무 처리시 처리 담당자의 이의제기 절차 고지를 의무화하고, 최종 결과 통지시 처리결과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의 제기방법을 알려주어 경찰관서를 출입한 이후 경찰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난 후 업무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친절성을 업무담당자가 직접 자가 진단 함으로써 자신의 업무태도를 자각하게 하고, 감독 및 감사에 대비하는 형식의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구축함으로써 통일되고 체계적인 자가진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시스템은 민원 불만요소에 대한 신고 또는 재조치 요구 등과 같이 사후조치에만 편중되어 있다. 민원만족도나 청렴도에 관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과정의 신속성이나 업무 담당자의 태도, 이의제기에 관한 부분들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결론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공직부문의 부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의존하는 사후 통제방법을 벗어나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인 반부패 방법으로 매년 객관적인 활동지표와 더불어 결과측면에서 부패유발 요인들을 계량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비록 위의 현황은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분석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청렴도 지수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충분한 현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찰의 경우 법집행기능과 함께 국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는 분야로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일반시민들을 비롯한 사회전체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부패 부문에 있어서는 많이 깨끗

해진 반면 경찰기능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속 및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권위주의, 편파수사 등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금품과 향을 제공하는 빈도와 경험 등을 측정하는 체감청렴도에 있어서는 개선의 노력이 눈에 띄게 보일만큼 점수가 높아져 가고 있으나 부패인식도와 이의제기 용의성 그리고 기준절차 현실성 등을 측정하는 잠재청렴도에서는 항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이 신뢰회족 기반을 조성하고 깨끗한 경찰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의식의 정착, 민원 모니터링 확대 실시,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업무행태의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온라인 고객평가 시스템 구축과 같이 잠재청렴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이동영, 경찰분야부패방지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서울, p.3, 2006.

[2] 국가청렴위원회,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 서울, p.8, 2005.

[3]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372, 2007.

[4] 경찰대학, *경찰윤리*, pp.111-114,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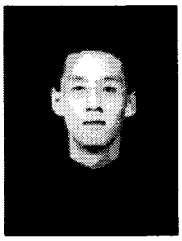
[5] http://www.index.go.kr/egams/stts/jsp

[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백서*, 서울, p.45, 2008.

[7] http://www.acrc.go.kr

저 자 소 개

조 호 대(Ho-Dae Cho) 정회원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석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박사)
- 2003년 ~ 현재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의 재난관리, 경찰인사, 경찰조직관리, 경찰운용